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도 6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5.28(목)

사측 추가 제시안 없이 종료... 교섭의무 조항 입장차 확인

“원안 취지와 거리 멀다” ... 노측, 추가 제시안 요구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6차 집단교섭이 5월 28일(목) 14시, 발레오만도 식당에서 진행되었다.

교섭에 앞서 13시10분부터 발레오만도지회 현장순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교섭에는 노측대표 정진홍 지부장 외 22명, 사측대표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현대아이에이치엘 최진규 책임매니저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교섭에 앞서 발레오만도 서상해 대표이사는 “지부 교섭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며 “발레오만도 사업장이 지부 교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지부 교섭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교섭대표 모두발언에서 노측대표 정진홍 지부장은 “발레오만도는 과거 47일간의 파업이 있었던 사업장”이라며 “다시는 그런 파국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 속 수단인 만큼 노사가 대화를 통해 교섭 기간을 줄이고 의견 접근에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은 예년과

